

오피니언

월/요/광/장

김택민



지금이야 더운 여름에도 냉방이 잘된 방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많고 원하면 쌀밥에 보양식을 얹든지 먹을 수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렵고 없는 일이었다. 찌는 듯한 더위와 꺼질꺼질한 풀 때 죽은 참으로 싫었다. 그래서 아침저녁으로 소슬한 바람을 맞고 비가 누렇게 익어가는 들판을 바라보는 것이 참 좋았다. 추수해서 하얀 쌀밥을 배불리 먹는다는 것은 생각만으로도 뿌듯했다. 또 한여름의 모기는 얼마나 극성스러웠던가? 그러던 모기도 찬바람이 불면 주둥이가 구부러져 물지 못한다. 모기로부터 해방되는 기쁨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짐작할 수도 없을 것이다.

예전 같지는 않지만 지금도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좋다. 마주치는 사람들도 더위가 지나고 좋은 시절이 왔다는 듯 서로 덕담을 주고받는다. 언론 매체에서는 어김없이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계절이 왔음을 보도한다.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찌는 계절'이라는 뜻의 이 성어를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이자 동시에 '독서하기 좋은 계절'이라고 바꾸어 생각한다. 그러나 원래 중국에는 이같이 낭

만적인 뜻을 내포한 '천고마비'는 없고, 유목민족의 침략을 뜻하는 '추고마비(秋高馬肥)'만 있었다.

지금 중국은 옛날 유목민족들의 땅까지 모두 아울러 자기를 영토로 삼고 있지만,

천고마비와 추고마비

예전에는 황하 유역의 중원평원만이 한쪽의 땅이었고, 이곳이 원래 중국이었다. 그런데 중원은 이를 둘러싸고 있는 유목민족들로부터 끊임없이 침략을 받았다. 그래서 최초의 통일왕조인 진나라는 만리장성을 쌓아 흉노의 침공을 방어하려 했으나 곧 멸망했다. 뒤를 이은 한나라는 흉노에게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군대를 동원하여 대대적으로 공격을 가하기도 했으나 침략을 막아내기가 쉽지 않았다. 매년 가을이 깊어 흉노의 말들이 살찌는 때가 되면(到秋馬肥) 침략이 있기 마련이어서 전전긍긍하였다.

당나라 때는 돌궐·토번·회흘 등의 유목민족들이 끊임없이 침략하여 편할 날이

없었다. 두보(杜甫)의 할아버지 두심언(杜審言)은 돌궐과의 전쟁에 나가 있는 친구 소미도(蘇味道)가 승전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며 시를 지었는데, 다음은 그 일부이다.

구름 맑은 하늘에 해성이 날리고(雲淨妖星落)/가을이 깊어가니 요새의 말들은 살이 찌졌구나(秋深塞馬肥)/말안장에 기대어 명검을 휘두르고(據鞍雄劍動)/붓을 휘둘러 격문을 날리도다(搖筆羽書飛)

손자 두보는 '유화문(留花門)'이라는 시를 지으면서 할아버지의 시구를 살짝

고쳐 '높은 가을 하늘 아래 말들은 살찌든 하나니(高秋馬肥健)'라고 읊었다. 이후 사대부들은 유목민족의 침략을 염려하는 시문을 지을 때 다시 이를 '추고마비(秋高馬肥)'로 고쳐 써어처럼 썼다.

송나라 때는 거란족·여진족·몽고족의 침략이 차례로 이어졌다. 특히 남송 때는 회수(淮水)를 경계로 여진족의 금나라와 대치하고 있었는데, 여진족은 가을이 되어 말이 살찌고 활이 팽팽해지면 회수와 양자강을 건너 침략해 왔다. 그래서 사대부들은 '가을 하늘이 높아지고 말이 살찌므로' 상쾌하고 풍요롭다는 뜻으로가 아니라 또 여진족들의 침략이 있겠지 하고 염려하는 뜻을 담아 더욱 절실하게 '추고

마비'를 읊었다. 이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고려사'에는 '추고마비'가 보이지 않는다. 고려도 북방 유목민족들의 침공을 받았지만, 중원처럼 매해 가을마다 침략을 당하는 처지는 아니었을음을 의미한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유목민족의 말들이 살찌는 계절을 염려하는 기사가 일부 보이지만, 중국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다. 조선 초기 100여 년 동안에는 '초장마비(草長馬肥)'가 10여 개 보이는데, 이는 풀이 자라 말을 먹일 수 있는 4~5월에 야인(野人)들의 침략이 있을 것을 염려하는 말이다. 17세기 초 선조 말부터 광해군 시기까지 20여 년 동안에는 '추고마비'를 염려하는 논의가 5-6차 보인다. 그때는 만주족이 청을 세우고 명나라뿐만 아니라 조선까지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상황이었다. 청나라는 결국 정묘와 병자 양 호란을 일으켜 조선을 굴복시켰지만, 명나라는 그들에게 멸망했다.

아직 한낮의 햇볕은 따갑지만 아침저녁으로 제법 바람이 시원하다. 가을바람을 맞으며 동아시아의 역사를 더듬어본다. 중국은 역사시대 내내 유목민족들의 침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우리나라도 그들의 침략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니나 중국에 비하면 빈도는 매우 적었다.

〈고려대 역사교육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쌀값 대란' 막을 근본대책 시급하다

쌀값 출하가 압박하면서 쌀값이 폭락해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민간 보유분 26만톤을 포함해 총 82만톤의 쌀 재고물량이 국내 창고에 쌓여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가 권장한 적정 쌀 재고(72만)량을 10만 이상 웃도는 물량이다.

올해도 평년작을 웃도는 465만톤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돼 쌀 재고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벼 수확이 본격화될 경우 쌀값 폭락은 물론 보관할 창고마저 부족해 벼 수매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재고 쌀을 보관하는 비용도 부담되고 있다. 연간 3천억원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이 재고 쌀을 보관하는데 지출되고 있다.

생산이 늘면서 쌀값도 추락하고 있다. 이달 초 산지 쌀값은 80kg 한 가마에 14만7980원으로 지난해 수확기 쌀값(16만2416원)보다 8.9% 떨어졌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당정협의를 갖고

올해 벼 매입자금 지원규모를 당초 예산보다 9% 많은 1조원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매입 규모를 늘려 쌀값 하락에 대한 농민의 불안 심리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국내 쌀 농사의 기반 붕괴라는 최악의 상황마저 우려되고 있다. 쌀 재고 문제는 임시처방으로 치우칠 수 없다. 지속적인 대책 지원과 실효성 있는 쌀소비 촉진정책 개발이 시급하다.

쌀 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이 급선무다. 지난해 국내 쌀 생산량의 6%가 가공식품 생산에 사용됐다. 일본의 14%와 비교하면 국내 쌀 가공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무한하다는 얘기다.

농도 전담은 쌀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타 사·도 보다 크다. 풍년 농사를 짓고도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는 일이 없도록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또 터진 병역비리 근절의지 있나 없나

병역비리 사건이 또 터졌다. 수도권에서 대규모 병역비리가 잇따라 적발된 것이다. 잊힐 만 하던 재발하는 병역비리가 우리 사회의 '풍토병'으로 자리 잡은 것은 아닌지 개탄스럽다.

서울경찰청은 '환자 바뀌치기'라는 신종수법을 이용한 병역비리를, 경기도 일산경찰청은 프로축구선수, 연예인 등이 포함된 204명에 대한 병역기피 혐의를 수사 중이다. 환자 바뀌치기 수법은 놀랍게도 '병역 연기 사이트'를 이용해 신부전증 환자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진단을 받아 공익근무 관정을 받도록 했다고 한다. 일산경찰서가 적발한 병역비리는 밀정환 어깨를 수술해 면제 등을 받게 했다. 신종·전통수법을 가리지 않고 비리를 저지른 것이다.

병역비리는 고질병이 되다시피 했다. 이는 병역비리가 터질 때마다 당국이 엄중 처벌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약속하지만 완벽하게 차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도 아무리 신종 수

법이라지만 3년 가까이 병역기피 행위가 인터넷에서 벌어지는데도 당국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병무행정의 허술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병역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지도층부터 국가적 의무를 앞장서서 떠맡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동안 고위 공직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탈세, 논문표절에 덧붙여 병역기피가 주요 메뉴로 떠오르게 사실이다. 또 병역비리 사건에는 고위 공직자, 고액 재산가, 연예인, 운동선수 등 지도층 인사가 반드시 포함됐다.

따라서 사회 지도층의 비리와 부정을 근절하지 않는 한 병역비리라는 고질병은 치유할 수 없다. 이들에 대한 병역의무를 특별관리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얘기다. 당국은 이번 사건을 끝까지 추적, 전모를 밝혀내 다시는 공공연한 병역기피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기고

윤영월



지난 18일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막식에 참석해 모처럼 꼼꼼하게 전시들을 살펴보았다. 개막식을 아워인 비엔날레 전시장 테마파크에서 진행해 시민들이 늦더위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했다. 개막식 하면 보통 시의 제일 여튼을 비롯 맛집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내외귀빈을 소개한다. 의견을 담당하신 분은 소개하는 순서가 잘못되면 여쭙게 노심초사하면서 행사의 순서가 내빈소개에 있는 것처럼 식을 진행한다. 모처럼 시간

까? 생각하며 식사를 빠져나오다 마당에 장터국수를 보고 다시 한번 감탄했다. 장터 국수를 나누어 먹는 것이 '식'의 의미였다. 소박하고 간단한 상차림이었지만 최고의 국수였다. 제3회 디자인비엔날레의 전시 내용은 어느 해보다 특별했다. 우리 조상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생활 도구들을 전시했고, 그 도구들의 디자인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집대성했다. 또, 전시장에서 눈에 띈 것은 장애우

'공감의 장'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내어 행사에 갔다가 귀빈을 소개할 시간이 되면, 자신은 그 소개에 해당되는 지 안 되는지 초조해 하는 사람도 있다. 다행히 자신이 해당되면 참석할 손님들에게 인사를 하게 되어 얼굴 내민 보람을 느끼기까지 한다.

그런데 이번 디자인비엔날레의 개막식은 기존의 개막식과는 사뭇 달랐다. '더 할 나위 없는 THE CLUE' 주제에 맞추어 '의식주'를 테마로 한 개막식 행사였는데, 이 테마를 표현하는 발상이 참 독특했다. '의'의 의미로 시장님, 부이사장님이 한복 차림을 하시고 대화와 환영사를 했다. 내빈소개도 따로 없었다. 테이프 커팅 대신 직접 사인한 긴 깃발을 들고 전시장 앞으로 걸어가는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참 기발한 아이디어다. 무더운 야외시장에서 일일이 호명하고 인사하는 의식을 했더라면 땀벌 아래 시민들 마음은 어땠을까?

'주'를 의미한 것은 무대기둥이었다. 기둥을 붙이면서 무대를 만들어가는 퍼포먼스가 인상적이었다. 광주예술고등학교 무용과 학생들로 꾸며진 선너른 춤의 최요한 찬사를 이끌어낸 퍼포먼스였다. 개막 행사가 끝나고 '식'의 의미는 필

들이 사용하는 휠체어처럼이다. 누군가가 밀어줘야 갈까 턱을 넘어 가는 휠체어를 일반인들이 탈 수 있도록 장애우의 애로를 알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방기구나 욕조, 세면기의 높낮이 조절 등 생활에 직접 필요한 조그만 디자인의 발상이 가져다주는 편리한 세상을 눈 앞에서 볼 수 있었다. 다니엘 핑크는 '새로운 미래가 온다.'라는 저서에서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남고 번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이컨셉·하이테크 재능이라고 설명한다. 디자인이 바로 그것에 해당되는 게 아닐까.

디자인의 필수 요소는 공감이라고 생각한다. 훌륭한 디자이너들은 자신이 디자인하는 제품이 서비스를 그것을 경험하게 될 사람들의 입장에서 창조하기 때문이다. 이번 디자인비엔날레에서 발견한 것은 다른 아닌 디자인의 '공감'이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아시아로, 세계속으로' 널리 퍼지는 전시회가 되기를 바라며, 이번 전시회를 기획하고 출판하신 디자이너들에게 찬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

〈광주예술고등학교 교장〉

허례허식 추방...검소한 결혼문화 정착시켜야

평소 결혼식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축하보다는 눈도장 찍기에 불과한 허례허식의 요소가 많다. 얼마 전 회사 일로 일본에 갔다가 그곳의 결혼식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 많은 걸 배우게 했다.

친척들끼리 모여 조촐한 만남을 갖고 소박한 연회를 여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축하모임 같다는 생각이 들게 하였다. 하객이라야 모두 40여명 정도였다. 그들은 대부분 친척이었고 신랑신부의 친구 몇몇이 다였으며

초대장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참석할 수 없는 것이 특이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신랑의 아버지가 자차단체장 출신이었는데 그 흔한 환한 하나 없었다.

그리고 우리처럼 축의금을 주고 나가버리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예식장 분위기는 조용하고 엄숙해 손님대접에 한점의 착오나 혼란을 빚는 일도 없었다. 이런 결혼문화, 이젠 우리도 좀 배우며 바뀌 나가야 할 것 같다. ▲오동은·광주시 동구 금동

기고

김용환



한반도는 동북아 지역 해양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주변 해양세력인 일본·미국과 대륙세력인 러시아와 중국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맞닥뜨리는 승명적 요충지이다. 국제사회에서 한반도의 입장과 위치는 과거와는 사뭇 다르지만, 아직도 바다를 놓고 벌이는 해양영토에 대한 주권, 해양자원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과 분쟁은 당면과제로 남아있다.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대한 국가

당국도 중국선원 11명에 대해서 징역 7년 등 중형을 선고했다.

지난 9월초 중국 유자망어선 금어기가 종료되면서, EEZ 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나라 공권력에 대항하는 등 중국어선 선원들의 흥포화된 행위들로 인해 해경은 경비합성, 구난 헬기 등 최대 경찰력을 동원해 입체적인 해상 경계 근무에 임하고 있다.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중국어선의 '싸늘이식' 조업으로 인한 어장황폐화는 어민들의

해양주권 지키다

이익이 상충하고 있는 인접국가인 중국과 일본과는 어업현정으로 간신히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EEZ를 침범한 불법조업 행위는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해양경찰청이 지난 2001년 6월 30일 한·중 어업협정 발효 이후 8년여동안 EEZ에서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한 중국어선이 3천152척, 이들에게 부과 국고 귀속된 담보금도 335억2천여만원에 이른다.

EEZ는 어민들의 생존권, 국가간 자원 쟁탈전이 벌어지는 곳이다. 우리 해경은 국토면적의 4.5배에 이르는 EEZ에서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어민의 생존권과 어족자원을 지켜내기 위해 24시간 '소리없는' 전쟁을 펼쳐왔었다. 이런 과정에서 지난해 9월 중국어선 검문검색 과정에서 해양경찰관이 숨진 사건으로 국민들께 실망감을 안겨 주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후 해경은 해상 공권력 강화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EEZ내 불법행위에 대해서 확고한 법집행을 해나가고 있다.

또, EEZ 해양주권을 확고히 하려는 전 국가적 대응 강화 의지가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법

고통을 가중하고 있기에 생업보호 차원의 단속 활동은 꼭 필요하다.

이런 분위기를 아는지 지난 3년간 9월 한 달 평균 30여척의 중국어선이 나포된 반면, 올해는 9월 현재 태안 관내에서 나포된 1척이 전부이며, 해경의 빈틈없는 삼엄한 경계와 단속 의지가 중국어선의 불법 의식을 억제하고 있다고 본다. 10월 중순 중국 저인망어선의 조업까지 합세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중국어선 집중 조업기에는 중국어선 일일 조업척수 최저 300여척, 최대 3천여척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어민과 해양자원을 보호한다는 사명감으로 해경은 임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다. 외국어선에 대한 단속뿐만 아니라 중·대 등 주변국과의 독도·이어도를 놓고 해양 쟁탈전이 벌어지는 최전방에서 주권과 자존심을 지켜내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

해양주권 수호에 필요한 해양 전략적 접근을 확보하여 해양력을 키워나가고 나아가 민족의 자존심과 민족생존의 활로를 지켜나갈 것이다.

〈목포해양경찰서장〉

공무원 '직급보조비'에도 세금 부과해야

현재 공무원들은 '직급보조비'라는 걸 받고 있는데 여기에는 단 한푼의 세금도 붙지 않는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 원 정도 받는 4급(서기관) 공무원의 연말 소득증명서 상수증을 보면 비과세 소득 항목에 1천만원 정도가 포함돼 있다. 이는 매달 40만 원씩 받는 직급보조비와 35만 원씩의 월정 직책급, 그리고 10만 원씩의 급식 보조비를 더한 액수인데 이는 연말정산에서 세금도 돌려받는 항목들이다. 이 공무원의 연봉이 5천만 원

정도라고 했을 때 총급여의 1/5이 비과세인 셈이다. 이 중에서 직급보조비는 말단에서부터 대통령까지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고, 월정 직책급은 과장급 이상 간부에게, 매달 지급되는 항목이다. 이 모두 예외 없이 비과세이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세금 한 푼도 내지 않고 고스란히 타가는 수당은 한 해 1조 5천억 원에 이한다고 한다. 이런 황당한 세금정산 방식은 당장 고쳐져야 할 것이다. ▲임정화·광주시 동구 충장로2가

無等鼓

6년 전만 해도 최일선 치안행정 기관은 파출소였다. 시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각종 재산과 사건·사고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민생치안의 첨병이었다. 순찰에서부터 교통사고·도난·미야신고, 인허가 접수 등 업무도 많았다. 때론 해어진 가족들의 상봉장이었고, 급할 땐 이곳에서 차비까지 타가는 시민들도 더러 있었다.

반세기 가까이 동네 치안을 맡아왔던 파출소 체제가 변화가 생긴 것은 지난 2003년 10월, 3~5개의 파출소를 한데 묶어 '순찰지구대'로 통합하고 인원과 기능을 넓혔다. 분산된 경찰력을 지구대로 집중시켜 날로 광역화·흥포화하는 범죄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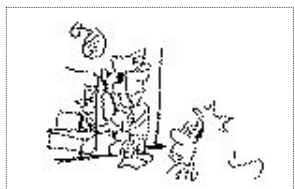
그 결과 전국 2천944개의 파출소가 864개의 지구대로 합쳐졌다. 나머지 파출소는 낮에만 경찰이 상주하는 '치안센터'로 바뀌었고, 통합이 어려웠던 187곳은 그대로 남았다.

하지만 전담을 비롯한 농촌의 경우

순찰횟수 감소로 범죄가 되레 늘고 주민들이 치안 부재를 호소하는 등 문제점이 잇따라 노출됐다.

강화리 경찰청장이 최근 파출소 체제의 부활을 공식 선언했다. 경찰관이 지역사회에 소속감과 책임감을 갖고 치안 활동을 하는 데는 세분화된 파출소 형태가 더 낫다는 배경에서다. 광주에서도 학운파출소 등 8곳의 재생이 검토되고 있다.

파출소



강 청장은 미국·영국 등에서 뿌리를 내린 '커뮤니티 폴리싱'(Community Policing·지역경찰활동)을 우리나라에서는 예전부터 파출소를 통해 해왔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주민들이 경찰과 연계해 동네를 스스로 지키는 시스템이다. 문제는 지구대를 파출소로 전환할 때 부족해지는 인력이다. 고대 체제 등 경찰관들의 근무여건 악화를 방지할 대안 마련도 필수적이다. 부활되는 파출소가 진정한 '풀뿌리 대면(對面) 치안'의 거점으로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정후식 사회1부장 who@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실장 丁在炫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		www.kwangju.co.kr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92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정치부 2200-634	여론제작부 2200-679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사회 1부 2200-612	체육팀 2200-66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F A X 222-4267)	조선부 2200-57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